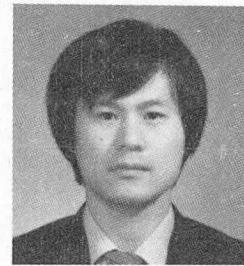


선물(先物) 거래란?(下)



김 치 영

(한국사료협회 무역과장)

<6월호 63쪽에서 계속>

3. 주요 상품거래소 현황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는 1848년에 설립되어, 현재 월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상품거래소이다. 여기서 거래되는 대두, 소맥, 옥수수시세는 국제시세의 지표가 되며, 우리나라의 식탁은 물론 전세계의 식탁을 좌우하고 있다. 근년에 들어서는 금, 은과 함께 금융상품, 즉 재무성증권과 상업어음 등이 거래되기 시작했고 휘발유, 원유와 등유까지도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거래시간은 곡물은 9시30분에 시작하고, 기타 금융상품은 8시30분에 시작하여 대부분 13시35분에 끝난다. 또한 인도월은 각 상품의 특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대부분 12월, 3월,

<표2>CBT의 거래내용

상장상품	개장시간	계약단위	인도일
소 맥	09:30~13:15	5,000bu	7,9,12,3,5월
옥 수 수	09:30~13:15	5,00bu	12,3,5,7,9월
귀 리	09:30~13:15	5,000bu	7,9,12,3,5월
대 두	09:30~13:15	5,000bu	9,11,1,3,5,7,8월
대 두 유	09:30~13:15	60,000lb	10,12,1,3,5,7,8,9월
대 두 박	09:30~13:15	100톤	10,12,1,3,5,7,8,9월
상업어음(90일)	08:00~14:00	1,000,000\$	당월말일전
상업어음(30일)	08:00~14:00	3,000,000\$	당월말일전
정기예금증서	07:30~14:00	1,000,000\$	3,6,9,12월
재무성증권	08:00~14:00	100,000\$	당월말일전
재무성어음	08:00~14:00	100,000\$	3,6,9,12월
금	08:25~13:25	100온스	1,3,5,7,9,11월
은	08:40~13:25	5,000troy oz	계약후 15개월
합 판	09:00~13:00	76,032 sq. ft.	1,3,5,7,9,11월

자료 : *Guide to World Commodity Markets*. 1983.

5월, 7월, 9월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거래계약단위는 곡물은 5,000부셸이다.

Chicago Mercantile Exchange를 줄여 CME라 불리는 또

하나의 CME상품거래소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어즈타워 근처에 자리잡고 있다.

CME는 1898년에 개설된 Chicago Butter and Egg Board가 확대 발전됨에 따라 1919년에 개명된 거래소로서, 부속기관으로 1972년에는 IMM(International Monetary Market), 1976년에는 AMM(Associate Mercantile Market)을 설치하게 되었다. CME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주로 육류로서 생돈(生豚), 냉동「포크밸리」(pork belly), 생우(生牛), 브로일러 등이다. AMM에서는 계란, 원목, 감자, 냉동칠면조, 사탕수수, 버터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IMM에서는 대부분 외화와 기타금융자산 및 금속 등이 거래된다. 거래시간은 대개 8시 45분부터 13시까지 이루어진다. 상품의 인도월은 CME나 AMM에서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IMM에서는 모든 외화와 금속 등이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로 동일하다.

COMEX(Commodity Exchange)는 비철금속시장으로서 영국의 LME와 함께 세계 양대 시장을 이루고 있다. 주로 동파아연, 금, 은 등이 거래되고 있으나, 이중에서도 금의 거래가 가장 많아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 CBOT, CME, COMEX 이외에도 CSCE(Coffee, Sugar & Cocoa Exchange)에서는 커

피, 원당, 코코아가 많이 거래되고 있으며 NYCE(New York Cotton Exchange)에서는 원면이, NYMEX(New York Mercantile Exchange)에서는 「플라티니움」과 원유등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미국 상품거래소의 조직은

mission)로 대치되어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산소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채권, 채무관계를 최종적으로 완결짓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청산소는 회원 개인과는 관계없이 중개회사와



집행부와 청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부는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일반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Board of Governors)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무성산하의 CEA(Commodity Exchange Authority)로부터 엄격한 규제 및 감독을 받아왔다. CEA는 1975년 이후부터 그 역할이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

의 거래를 통하여 그 중개회사 명의로 모든 거래대금을 결재한다. 따라서 개개회원의 이름은 청산소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청산소는 각 거래관계에서 반대입장을 취하게 된다. 즉 상품을 매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그 상품을 매도한 회원을 대신 해서 청산소가 매도한 입장이 되고, 상품을 매도한 회원에 대해서는 그 상품을 매입한 회원



을 대신해서 매입자가 된다. 따라서 각 거래단계에서 회원이 직접 누구와 거래했는지의 여부를 알 필요가 없게 되며 거래관계를 좀더 확실히 보증해주는 의미가 있다.

한편 모든 거래대금은 다음 날 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모두 청산되어야 한다. 모든 중개회사는 그 전날의 거래대금을 결제한 후 발생되는 부채나 채권은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지불받아서 채무, 채권관계는 완결된다. 따라서 중개회사는 어떠한 신용대출도 허용되지 않으며 그 전날로부터 청산후 부채가 남아 있으면 더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은 무부채제도(無負債制度)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자가 전혀없는 거래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거래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CFTC와 회원위원회(Membership Committee), 그리고 이사회에 의하여 재정적인 신용조회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각 회원들은 중개회사와 마찬가지로 거래에서 부로커로서 수수료를 받고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대금을 청산하고자 할 때는 중개회사를 통해서 청산소에서 청산하게 되며 그 중개회사와 청산거래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회원은 중개회사의 고객이 된다.

4. 우리나라 선물거래 현황

우리나라의 해외선물거래는 1차석유파동 및 자원파동이 발생한 이후 1974년 12월 해외선물거래 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조달청이 선물거래의 위탁자가 되어 민간 기업을 대리하여 선물거래에 참여케 하였다. 동 규정이 제정된 이후 주로 조달청의 비축물자와 관련하여 선물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민간기업의 이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해외선물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2년 동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선물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그후 국내에도 해외선물거래 중개회사가 생겨나면서 점차 활기를 띠고있다.

1992년 현재 우리나라의 선물거래 대상품목은 20개로 그 중 농림축산물이 12개, 비철금속 6개, 기타 2개로 되어있다. 농림축산물중에는 소맥, 옥수수, 대두, 대두유, 대두박, 생고무, 원면, 원당, 원모, 수수, 커피, 원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물거래 참여 형태는 선물시장의 멤버쉽을 지니고 있는 국내진출 6개중개사를 통해 선물을 사고 파는 형태이며, 일본과 대만은 자국 국민이 멤버쉽을 확보한 상태에 까지 와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부 상사에서 멤버쉽확보를 검토한 바 있으나, 멤버쉽 확보금액(50만

불 수준)이 비싼데 비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확보치 않고 있다.

현재 국내 사료업계의 경우 타업계에 비해 선물거래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고,

물량도 계속 확대일로에 있다. '89년 현재 사료용 옥수수의 선물거래물량이 100만톤을 넘어 설 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회사는 선물거래의 기법을 응용한 Basis거래도 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에 선물시장(거래소)을 개설하는 문제가 조달청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이렇다 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설정을 감안하면 가격안정의 대상품 목은 주로 채소류가 중심이 되겠는데 과연 이같은 상품들이 어떻게 표준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불가피하게 제기될 투기적 요소를 어떻게 배제시켜 나가느냐가 주요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백여년동안 계속되어 온 미국의 선물시장도 지금까지 이같은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선물거래소도 한때 투기장화되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CBOT, CME등의 국제시세가 세계 농축산물가격의 지표가 되면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표3>국내 선물거래 중개사

중개사	계약회사	비고
대한상품(주)	REFCO GROUP, LTD	곡물취급
제랄드 매탈즈	제랄드 LTD	곡물취급
카길트레이딩(CIS)	카길인베스터서비스(주)	곡물취급
파리바 코모디티 LTD	파리바 코모디티 LTD	
엠지 코모디티	엠지 코모디티	
크레디 리요네 은행	크레디 리요네 은행	

<표4>우리나라 선물거래 실적현황

(단위: 톤)

구분	85	86	87	88	89
옥수수	-	508	100,457	430,276	1,080,765
대두	162,748	533,024	713,467	834,435	1,304,995
대두유	-	2,722	12,247	1,361	-
대두박	-	7,000	-	10,886	-
원면	-	-	953	12,906	17,458
금(온스)	-	-	(2,000)	(15,100)	(181,200)
온(온스)	-	(775,000)	(830,000)	(840,000)	(4,745,000)
전기동	45,450	45,250	86,775	92,950	199,925
연	900	3,550	2,850	2,500	10,025
아연	2,000	500	1,300	6,375	31,775
알루미늄	5,450	18,750	60,300	126,050	93,100
니켈	-	228	-	1,656	1,032
주석	-	-	-	-	200
원유(배럴)	-	-	-	(270,000)	(5,873,000)
생고무	-	-	-	-	-
계	216,548	611,532 (온스)	978,347 (온스)	1,519,395 (온스)	2,739,302 (온스)
					(270,000 배럴)
					(5,873,000 배럴)